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7.1. ~ 7.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수 3 - 9	시 126 - 140
	개인	사 63 - 렘 3	마 11 - 17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교회 - 교회(4)		
	<p>고린도전서 6장 19-20절</p> <p>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p> <p>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p>		



마태복음 11장 / 새 시대의 도래**개요**

1-19 세례 요한의 질문

20-24 회개하지 않는 고을

25-30 다 내게로 오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1-3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야이심을 알려주십니다(4,5절; 사 35:5,6; 61:1).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6-11절).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여 얻을 것이나, 은혜의 때에 반응하지 않는(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악한 세대는 천국을 빼앗길 것입니다(12-19절). 악한 세대에 속한 고을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20-24절). 한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25-30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요한보다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 안식일의 주인**개요**

1-21 안식일의 주인

22-50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합니다(1,2절).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는 날임을 가르치십니다(3-8절).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9-14절). 그곳을 떠나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15-21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 입어 행하는 일이라고 비난합니다(22-24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힘 입어 행하는 일임을 밝히십니다(25-37절).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함을 말씀하십니다(38-45절).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46-50절).

예수님은 충분한 표적을 이미 보이셨으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도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나아온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안에서 나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 천국 비유**개요**

- 1-23 씨 뿌리는 자 비유
- 24-43 알곡과 가라지 비유
- 44-52 보화, 진주, 물고기 비유
- 53-58 배척 받으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켜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 땅이 어떤 땅 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18-23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이 결실 하여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24-30절). 작은 겨자씨가 크게 되듯이,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31-35절). 그러나 결실할 때가 이르기 전에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나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36-40절). 그러한 천국은 보화 같고, 지극히 값진 진주 같습니다(44-46절).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47-52절).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53-58절).

천국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결실을 맺음을 보여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교회가 복된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7월 4일(목)

수6:6-27

시135

사66

마14

마태복음 14장 / 예수님의 능력

개요

- 1-12 세례 요한의 죽음
- 13-21 오천 명을 먹이심
- 22-33 바다를 걸으심
- 34-36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1-12절). 예수님은 그가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13-21절).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22-32절).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33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습니다(34-36절).

예수님이 베푸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주님 나라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견고히 섭니다. 그로 인해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 믿음과 주님 나라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위에 굳건히 서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5장 / 하나님을 떠난 전통**개요**

1-20 손 씻는 문제

21-28 가나안 여자의 믿음

29-39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사천 명을 먹이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습니다(1,2절).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십니다(3절).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부모 공경 계명을 왜곡하여 위선으로 행하는 그들을 질책하십니다(4-10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왜곡한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11-20절). 오히려 외적인 조건으로는 언약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나음을 입습니다(21-28절). 예수님은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십니다(29-39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치료자요, 목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을 가진 마음인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진 마음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봅니다. 어떤 때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선을 벗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형식에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6일(토)

수8

시139

렘2

마16

마태복음 16장 /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개요

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13-20 베드로의 신앙고백

21-2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합니다(1-4절).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5-12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13-20절). 그 후로부터 예수님은 죽고 삼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21-23절).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24-28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자기 고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참된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원리, 그리고 경험과 욕심으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고백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의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17장 / 십자가와 영광**개요**

1-13 예수님이 변화되심

14-27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산에 가셨을 때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1,2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3절).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료되어 머물러 있고자 하나, 그러나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4-12절). 한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믿음은 작습니다(13-21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실 말씀에 매우 근심합니다(22,23절). 세상 권세 앞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24-27절).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27절).

예수님은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한 가지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붙드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도 큰 능력이 있으며, 주님은 작은 자들도 실족하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작은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은 목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